luel

Live Stylish

www.luel.co.kr

MYLENE JAMPANOI
지극히 프랑스적인,
지극히 사랑스러운,
지극히 섹시한 배우

VS.
BMW 328i, 아우디 A5,
렉서스 IS350C, 인피니티 G37.
독일 대 일본산 컨버터블을
동시에 테스트했다

DIEGO DELLA VALLE
'이탤리언 터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토즈의 수장

製作奇談
애플 아이패드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VIVA LA DIFFERENCE!
전통으로 와인 세계화에
맞서는 여덟 개의 와인

BASEL REPORT
1915개의 시계
메이커에서 가려 뽑은
'바젤의 12사도'

BOOK IN BOOK
SWINGING STYLE
2010 S/S
뉴 골프 패션 아이템 82

+α

당신의 쇼핑 퀄리티를 충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줄 뉴 쇼핑 플레이스 13, 국내 편집매장 바이어들이 진심을 담아 추천한 여섯 종류의 로퍼, SPA 브랜드에서 막 건져 올린 쓸 만한 아이템들, 믿을 수 없게 스페셜한 멤버십 럭셔리 쇼핑 사이트들, 아틀리에, 빛, 환경주의, 자연, 낮은 비용 등 확실히 눈에 띄는 요소를 더해 특별해진 진화된 모던 하우스들

MAY 2010 / 8,000원

Modern Asian Men
LUXURY MAGAZINE NETWORK
luel MEN'S CLUB
摩登绅士 modern

05
9 771975 964000
ISSN 1975-9649

이것은 가구가 아니다

아트 퍼니처는 가구가 아니다. 가구의 형태를 띤 미술 작품이다. 그러니 가구의 편리성보다 감성을 자극해 다른 무언가를 상상하게 한다.

에디터 **김영진**

최병훈은 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가구를 만든다

귀를 기울이면 물소리가 들리고 바람소리가 들린다. 최병훈은 가구라는 틀에 자연을 담는다. 그의 체어는 계곡을 끼고 도는 물결처럼 자연스럽고 산 어귀를 돌아나오는 바람처럼 시원하다. 자연에 대한 섬세한 눈길이 단지 형태에 적용된 것만은 아니다. 바람결을 닮은 체어는 카본으로 만들어졌다. 공기가 이동할 때 바람이 된다. 응결된 공기의 가벼움을 닮은 카본을 소재로 사용한 건 그 맥락이다. 계곡물처럼 흘러내리는 체어는 여러 가닥의 나무판을 압축시켜 형태를 잡았다. 잎사귀에 떨어진 빗방울은 나무 줄기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고 계곡으로 모여들어 폭포가 되고 용소를 지나는 물결이 된다. 계곡의 물은 나무의 영혼을 기억하며 흐른다. 그렇게 수천 년의 시간을 흐르며 매끈한 조약돌을 빚고 바위에 윤기를 낸다. 그의 작품에는 용소 바닥에 내려앉은 햇살처럼 자연의 숨결이 깊숙이 담겨 있다. 그 햇살의 온기는 피부가 아니라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